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최초 타이틀 원한다” 새 역사 향해 다시 ‘점프’

세계선수권 참가 위해 출국
16일 예선, 결선은 19일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가장 무거운걸 걸고 오겠다”

실내에 이어 실외에서도 세계 정복에 나선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당찬 포부와 함께 결전지로 향했다. 우상혁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22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미국으로 떠났다.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열어가고 있는 ‘월드 클래스 점퍼’가 다시 날아오를 시간이다.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2m35(4위)의 한국 신기록과 함께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은 우상혁의 도약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2m34를 넘어 한국 최초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5월에는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서 2m33로 다시 한 번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 선수로 다이아몬드리그 정상에 선 것 역시 우상혁이 처음이었다.

이제는 실외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정조준한다.

이번에도 금빛 도약을 정조준하고 있는 그는 “실내에서도 우승했으니 당연히 실외에서도 우승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출국하겠다”며 정상을 향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5년 전 처음 참가했던 세계선수권 때와는 마음도 위치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첫 세계선수권이었던 2017 런던 대회에서 예선 탈락했다. 2m22에 그쳐 출전 선수 27명 중 25위에 머물렀다.

우상혁은 “(첫 대회인)런던 때는 막연하게 ‘잘하고 올거야’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후회하지 말고 오자’는 마음이 더 강하다”며 “후회 없이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왔다. 후회 없이 즐기고 오겠다”며 여유있게 웃었다.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고, 경계하는 강력한 우승 후보다.

우상혁도 육상을 감추지 않는다. “세계선수권에서 보면 결국 기록보다 순위 싸움이다. 순위 싸움을 하기 위해 계속 우승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눈을 빛냈다. 무타즈에서 바산(카타르), 장마르토 탬베리(이탈리아) 등과의 경쟁도 자신감이 넘친다.

“이겨봤으니 별로 신경이 안 쓰이다. 내 경기를 하는 것이 상대 선수에게 더 힘들지 않을



우상혁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22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미국으로 떠났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오후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0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높이뛰기 일일부 결선에서 2m30에 성공한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까”라는 우상혁은 “내 경기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다부지게 말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훈련하며 현지 적응을 마친 뒤 대회가 열리는 오리건주 유진으로 이동, 18일 예선을 치른다. 결선은 19일이다.

한국 선수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금메달에 도전하는 우상혁은 부담보다 실망이 더 크다.

“스타디움의 분위기를 빨리 느끼고 싶다. 관중도 오랜만에 이따 꽤 잘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신나게 즐겁게 뛰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스스로를 향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

“지금 몸이 간지럽다. 빨리 뛰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며 웃은 우상혁은 “계속 침착하려고 한다. 조절하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앞서가는 마음을 불쭙했다.

김도균 코치의 조언도 새기고 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높이에 신경을 쓰는 거다. 아사다시피 내가 낮은 바에서 자주 위기가 있다”고 짚은 그는 “이번 대회 만큼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 빈틈 없이 경기 운영하는 모습을 다른 선수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만약 그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한국을 넘어 세계 육상계에도 한 획을 긋게 된다. 실내와 실외 세계선수권을 모두 제패한 선수는 역대 4명 밖에 없다.

더욱이 같은 해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1993년 하비에르 소토마요르(쿠바)가 유일하다.

실내와 실외 대회는 2004년부터 각각 짝수해, 홀수해 열리게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실외 세계선수권이 올해 열리게 되면서 우상혁에게 ‘역대 두 번째’ 타이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항상 목이 마르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항상 최초의 타이틀을 원한다. 역사를 쓰고 이름을 남기고 싶다”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기 때 보여드리겠다. 자신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국 인터뷰 내내 넘치는 미소를 보여줬지만 결연한 의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대회가 2주 정도 남았는데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가장 무거운 걸(금메달)을 걸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체육 발전 응원 아끼지 않을 것”

전북체육회 김종하 종목지원과장 퇴임

전북체육회 김종하 종목지원과장 퇴임식이 지난달 29일 오후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을 비롯한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퇴임식은 주요 경력과 업적 소개를 시작으로 공로패 및 기념패 전달 송별사, 퇴임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언론인 출신인 김 과장은 지난 2015년 구)전북생활체육회 기획홍보과장으로 입사한 뒤, 전문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지역지원과장, 마케팅기획과장, 종목지원과장 등을 거쳐 전북 체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

정강선 회장은 송별사를 통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지만 아쉽고 서운한 마음은 크다”며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그동안 애쓰셨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하 과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직원들을 비롯한 체육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



김 과장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전북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대호 은퇴 투어, 첫 무대는 ‘KBO 올스타전’

40주년 레전드 40인 1~4위도 공개

올해를 끝으로 유니폼을 벗는 ‘조선의 4번타자’ 이대호(40·롯데)의 은퇴 투어 첫 무대가 올스타전으로 정해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15일과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에서 이대호 은퇴 투어의 스타트를 끊을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10년 넘게 KBO리그와 한국 야구를 빛낸 이대호는 올 시즌 후 은퇴를 예고했다.

KBO와 10개 구단은 지난 3월 이대호의 그동안 공로를 존중, 은퇴 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구단이 참가하는 은퇴 투어는 2017년 ‘국민 타자’ 이승엽 이후 두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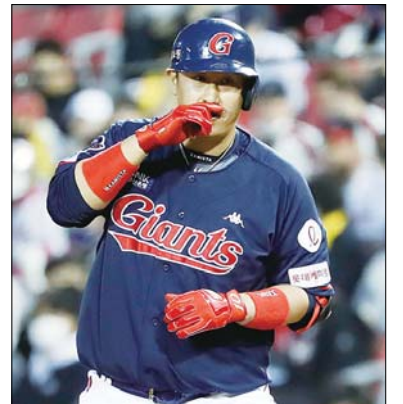
각 구단의 후반기 롯데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선보일 은퇴 투어에 앞서 KBO는 올스타전을 통해 먼저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올스타전에서는 KBO리그 40주년 ‘레전드 40인’ 최다 득표 1~4위의 주인공이 발표된다. ‘레전드 40인’은 팬들과 전문가 선정위원 투표로 최종 선정이 완료됐다.

올스타전 이후 9주 동안 매주 4명씩 36명의 주인공이 추가로 선보인다.

3년 만에 팬들과 다시 만나는 올스타전은 풍성한 행사들로 채워졌다.

올스타 전야제인 15일 올스타 프라이데이에서는 퓨처스 올스타전과 홈런레이스가 열린다. 2019년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퓨처스 올스타전은 오후 6시부터 남부리그(상무·롯데·NC·삼성·KT·KIA)와



북부리그(LG·고양(하이로즈)·두산·SSG·한화)가 맞붙는다.

퓨처스 올스타에 선발된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그라운드 사인회로 팬들과 마주한다.

퓨처스 올스타전 이후에는 KBO 올스타 50명 전원이 그라운드에 나선다. 그 중 8명의 거포는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레이스’에 출전한다.

올스타 프라이데이 사전 이벤트 경기로 미래의 KBO 리그인 리틀야구 올스타전이 오후 2시 30분부터 60인 경기로 열린다.

16일 KBO 올스타전 당일엔 팬 사인회로 문을 연다. 10개 구단 선수와 팬이 함께 하는 팀 빌레이 대결인 ‘신한은행 SOL 슈퍼레이스’도 3년 만에 다시 찾아온다.

올스타전 본 게임은 오후 6시 막을 올린다. /뉴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